

2019년



해외출장 가이드

캄보디아 프놈펜 출장자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

I. 캄보디아 체류정보	01
II. 캄보디아 개황	06
III. 캄보디아 경제 현황	10
IV. 시장 특성과 바이어 특징	26
V. 프놈펜 관광 안내	29
※ 현지 주요 연락처	31
※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32



I. 캄보디아 체류 정보

1. 입출국 정보

□ 입국 비자 발급안내

- 일반여권은 비자 필요, 관용·외교관용 여권은 60일간 비자 면제
- 1개월 관광비자(\$30) 또는 1개월 상용(비즈니스)비자(\$35) 도착 시 공항에서 발급 가능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증명사진 1매 필요)
 - 항공 도착 후 에스컬레이터 따라 1층으로 내려오면 좌측에 Visa Application 안내 데스크 있음. 비자신청서, 여권 및 비용 제출하면 비자 발급 후 여권에 비자 부착하여 주며, 호명시 여권 수령. 이후 Immigration으로 이동
 - 관광/상용 비자는 모두 유효기간이 30일이나, 비즈니스 목적이란도 한달 이내 출국 예정이고 샘플 통관에 문제가 없다면 관광비자 발급해도 무방. 단, 관광비자는 현지 연장이 불가하고, 사업 목적 등 장기 체류시에는 1개월 상용비자(\$35) 발급 권장하며, 상용비자의 경우에만 현지에서 연장 가능
- 입국시 준비서류 안내(기내에서 하단 3종 수령 가능)

출입국신고서 (동문서로 비자신청 겸)	세관신고서
출입국신고서 (동문서로 비자신청 겸)	세관신고서

-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 :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작성 후 출입국 심사대에서 심사
-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않은 경우 :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작성 후 비자 신청대에서 비자 신청

□ 통관

- 통관심사는 엄격하지 않으나, 세관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작위로 실시 (X레이 검사)되며, 의약품·기계·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

2. 체류 정보

□ 현지 기후 및 복장

- 열대몬순기후로 연평균 최저 25도~최고 35도로 무더우며,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됨
 - 건기(11월~3월) : 비교적 건조하고 최저 23도~32도 정도로 방문하기 좋은 날씨이나, 비는 거의 오지 않음. 1월이 가장 시원함.
 - 우기(4월~10월) : 오후중 스콜성 소나기가 거의 매일 내리면서 무더위를 식혀주며 1시간 이내에 개입.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에는 최고기온이 39도에 이름.
- 하복을 주로 착용하나,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긴팔을 입는 경우도 많음. 공식 행사 외에 넥타이는 거의 착용되지 않음.

□ 통화(USD) 및 결제수단

- 캄보디아 전역에서 미달러화가 통용되며, 현지화(Riel)는 1달러 이하 거스름돈으로 주로 쓰임. 원화(W)는 통용되지 않으며, 현지화로의 환전도 쉽지 않음.
 - USD1≒KHR4,000(리엘)이며 통상 100리엘, 500리엘, 1,000리엘 등의 지폐 사용됨.
 - 달러화는 한국에서 미리 환전하여 오는 것이 권장되며, 구권 100달러짜리나 모서리 등이 조금이라도 찢어진 경우 상점에서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 캄보디아 현지화(리엘) 지폐 >



- 호텔, 일부 고급식당 및 대형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소규모 결제를 꺼리고 일부에서는 2~5% 내외의 카드 사용료가 추가함.

☐ 교통수단

- 택시
 - 공항 택시의 경우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 주간 \$12~15 정액요금(후불)
 - * 프놈펜 공항 입국장 정면에 택시안내부스가 있음
 - 그랩(Grab) 택시(차량호출) 이용할 경우,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는 약 7.5\$~9\$ 소요
 - ** Grab : 차량호출/공유 스마트폰 어플, 개인운영 택시 서비스
 - 미터 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1\$, 주행 330m당 0.25\$ 추가
- 툽툽/모토
 - 툽툽(오토바이택시) : 시내 이동 시 2~5\$ (탑승 전 가격협상 요망)
 - 모토(오토바이) : 시내 이동 시 1~2\$ 내외 (저렴하나 안전도 낮음)

<참고> 그랩택시(Grab Taxi) 어플 이용방법

- ① 'Grab' 어플 검색, 다운로드
 - ② 신규설치시 인증번호 등록이 필요 (현지번호나 로밍 필요)
 - ③ 차량 종류 선택 후 픽업지점 및 목적지 설정
- (장점) : 미터기로 인한 정확한 요금계산 및 간편하게 목적지 설정 가능

① 'Grab' 어플 설치 및 번호등록 후 차량 선택(툽툽, 승용차, SUV)	② 픽업지점, 목적지 설정 ※ 공항은 airport phnom penh으로 검색	③ 금액확인 후 'Book' 버튼 누름

- 일반승용차 : Just Grab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 약 7.5\$~8\$)
- SUV : Grab SUV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 약 9\$~10\$)
- * (주의) 공항주차비용으로 인해, 출구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대, 별도 통화로 협상 필요

□ 항공편 운항 및 국제 버스 운행

- 프놈펜에는 日 왕복2편, 주 총14편의 인천발 직항편 운항 중('19.6월 기준)
 - ✈ 대한항공 KE689 인천(18:40) 출발 프놈펜(22:10) 도착
 - ✈ 대한항공 KE690 프놈펜(23:20) 출발 인천(06:40+1) 도착
 - ✈ 아시아나 OZ739 인천(19:30) 출발 프놈펜(22:55) 도착
 - ✈ 아시아나 OZ740 프놈펜(23:55) 출발 인천(07:15+1) 도착
-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베트남·태국·일본·홍콩·대만·말레이시아 등을 통한 경유편 입출국이 가능함
 - 방콕(일 18편), 싱가포르(일 6~8편), 호치민(일 6편), 쿠알라룸푸르(일 6편), 라오스 비엔티안(일 4편), 타이페이(일 4편) 이외에 베이징, 상하이, 하노이, 광저우, 타이페이, 마닐라 등에 직항편이 운항 중
- 프놈펜 ⇄ 베트남 호치민 왕복 버스편이 다수 운행 중
 - 한국 금호고속 투자법인(Kumho Samco Busline)이 일 8회 운행 중

□ 전기 및 통신수단

- 전압 : 220V / 50Hz
 - 콘센트 규격이 정해지지 않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모양이 많음.



-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분당 1\$ 정도이나 호텔은 더 비싼 편임.
 - * 단, 현지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경우 훨씬 저렴하게 이용 가능
(예) CellCard 핸드폰의 경우, 177 + 82 + 한국 전화번호 (0.15\$/분)
- 핸드폰은 SIM카드 이용 전화방식으로 최저 1~2\$ 정도면 번호 발급 가능(여권 필요). 공항 도착 후 프놈펜 공항에 판매 중인 SIM카드 구입하여 한국 휴대폰(스마트폰 등)에 삽입하면 현지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고 한국 통신사의 로밍 요금보다 훨씬 경제적임. 속도는 3G가 주류를 이루고, 일부 4G(LTE)를 표방하나, 유선 및 데이터 통신 품질이 한국 대비 50% 수준임.
- 호텔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와이파이(Wi-Fi)는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과부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속도도 괜찮은 수준임.

□ 종교 등

- 캄보디아 국교는 헌법상 불교이며 인구의 약 95%가 소승불교 신봉
 -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신앙,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로서의 역할 수행
- 캄보디아인들은 동남아시아 최대 왕국이었던 크메르인의 후손임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민족감정도 있음.

□ 체류 시 유의사항

- 최근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발생
 - 툽툽, 모토 탑승 시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핸드백 날치기, 야간 음주 후 귀가 시 폭행 강도 등 다수 사례 존재
- 야간 외출 및 단체행동, 야간 모토 탑승, 집회·시위·정치적 성격 회의 장소에는 접근 삼가
-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고액권 화폐 과시 삼가

□ 풍토병 및 감염질환 등

- 캄보디아에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특별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입국 후 초기에 음식이나 기후가 달라 장티푸스나 이질에 걸리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
- 말라리아는 프놈펜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삼림지역과 해안가 지역에서 발생
- 캄보디아인의 에이즈 감염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로 매춘을 통해 전염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기타 팁 문화 등

- 식당에서의 팁 문화는 관습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드나드는 고급식당에서 서비스 차지가 없는 경우에는 테이블당 \$1~\$2 정도면 충분함.
- 한국인들이 주로 귀국시 구매하는 현지 특산품으로는 상황버섯, 노니, 캐슈넛, 후추, 실크제품, 은세공품, 건망고 등이나 품질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 구매 시 주의 바람.

II. 캄보디아 개황

1. 일반 사항

국 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시 차	-2시간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림)
면 적	181,035km ² 한반도의 약 80%, 남한의 약 1.8배, 베트남의 절반
기 후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 기후 20~40℃의 기온 분포로 3~4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서늘 대체로 5~10월은 우기, 11~4월은 건기
수 도	프놈펜(Phnom Penh)
인 구	약 16,449,519 명 자료: (2018 US CIA World Fact Book) 인구밀도 : 86.7명/km ² (인구증가율 : 1.48%) 성비 : 여성 100명당 남성 105명
화 폐	Riel, CR 또는 KHR(Cambodian Riel)로 표기 경제 전반에 걸쳐 미 달러화 통용
언 어	크메르(Khmer)어
종 교	불교(국교, 96.9%), 무슬림(1.9%), 기독교(0.4%), 기타(0.8%)
건국(독립)일	1953년 11월 9일(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입헌군주제
국가 원수	국왕: Norodom Sihamoni(국가 원수) 총리: Hun Sen(정부수반/실권자/캄보디아국민당 소속)
입 법 부	양원제(임기 6년의 상원 61석, 임기 5년의 하원 123석)
정 당	CPP(Cambodian People's Party) 집권
국가지도	



2.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구	백만 명	15.0	15.3	15.5	15.8	16.0	16.2	16.5
명목 GDP	십억 달러	15.2	16.7	18.1	20.0	22.2	24.3	26.6
1인당 명목GDP	달러	1,014	1,094	1,163	1,269	1,384	1,450	1,621
실질성장률	%	7.4	7.1	7.0	6.9	7.1	7.0	6.9
실업률	%	0.3	0.1	0.18	0.26	0.3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6	1.1	2.8	3.9	2.6	3.0	3.2
재정수지(GDP대비)	%	-7.1	-3.8	-2.6	-0.9	-1.9	-3.7	-
총수출	백만 달러	10,987	13,011	14,708	17,334	17,929	18,987	-
(對韓 수출)	"	136	194	217	240	261	314	-
총수입	"	15,575	15,992	16,622	17,836	20,929	23,931	-
(對韓 수입)	"	615	654	653	573	604	660	-
무역수지	백만 달러	-4,587	-2,980	-1,914	-502	-3,000	-4,943	-
경상수지	"	-1,983	-1,640	-1,693	-1,780	-2,015	-2,376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3,995	4,075	4,052	4,045	4,109	4,048	4,063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34	1.73	1.70	2.15	-	-	-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4,496	1,604	3,920	3,249	4,909	5,524	-

* 주1: 대한 수출, 수입 규모를 제외한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 주2: 총수출입 규모 및 무역수지는 ITC Trade Map 교역상대국 데이터(mirror data) 반영 통계

* 자료원: IHS Markit, 캄보디아중앙은행(NBC), ITC 통계(IMF, EIU, OECD 인용), 한국무역협회

□ 고도성장세 안정적인 유지 전망

-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세 주춤하였으며 2009년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었으나, 2010년부터 봉제업 제조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7% 이상의 고도성장 기록
-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확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지출 개선과 민간 소비의 꾸준한 증가로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세(7.0%) 지속 전망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8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을 7.3%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 최근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부동산 및 인프라 산업의 투자 급증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분석됨.

□ 제조업 부재로 인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 제조업 산업이 미약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음, 생활용품의 경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고, 높은 전기세, 유통·물류 비용의 저효율로 인해 일상생활용품, 가공품의 시장가격이 소득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특징
- 낮은 인건비로 인해 수출형 노동집약적 산업 기업이(특히 섬유, 신발 제작 업체) 다수 투자 진출하여 봉제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성장하였으나, 수입되는 중간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수출대비 수입량의 격차(무역적자액)가 증가하는 추세
- 주요 수출·제조 동력이 섬유, 의류에 편중되어있어 지소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신(新)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18년 총선으로 출범한 제6기 신정부의 캄보디아 제조 및 수출품의 다변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표명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개혁을 위해 노력 중

□ 중국발(發)투자 확대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 증가

- 2014년을 기점으로 다소 주춤했던 대(對)캄보디아 외국인 투자유입 추이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점차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CDC)에 따르면 2018년 총 150건의 외국인 투자 신고 건을 승인하여 총 58억불의 해외 투자를 유치함.
-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현재 부동의 1위로 캄보디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주로 부동산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 투자) 2018년 CDC가 집계한 외국인 직접 투자 건수의 거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함.



3. 한국-캄보디아 관계

체결 협정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7년 3월 25일 발효)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7년 3월 12일 발효) EDCF 공여 기본협정 (2001년 4월 10일 발효) 항공협정 (2001년 5월 10일 발효)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EDCF 협정 (2001년 11월 8일 발효)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 각서 (2001년 11월 29일 발효) 직업훈련원사업 EDCF 협정 (2002년 6월 5일 발효) 도로개보수 EDCF 협정 (2002년 11월 6일 발효) 수자원개발 EDCF 협정 (2006년 3월 21일 발효) 문화협력협정 (2006년 8월 24일 발효)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2008년 11월 1일 발효) EDCF 기본약정 서명 및 발효 (2008년 12월 30일 발효) 농업기술전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9년 5월 30일 발효)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 및 발효 (2009년 6월 4일 발효)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2009년 11월 29일 발효)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10년 10월 17일 발효)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협정 (2010년 4월 12일 발효) 한·캄 범죄인인도협정 (2011년 10월 1일) 은행 지급결제 현대화 사업 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상표 분야 협력 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청년 예비창업가 활성화 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2019~23년 EDCF 차관 기본약정 (2019년 3월 15일 체결)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체결)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2019년 3월 15일 체결)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발효) 학술 협력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체결) 형사사법공조조약(2019년 3월 15일 체결)																
교역 규모	<table border="1"> <tr> <td>2012년</td><td>수출: US 5억 9,300만\$ 수입: US 1억 2,600만\$</td></tr> <tr> <td>2013년</td><td>수출: US 6억 1,464만\$ 수입: US 1억 3,613만\$</td></tr> <tr> <td>2014년</td><td>수출: US 6억 5,441만\$ 수입: US 1억 9,399만\$</td></tr> <tr> <td>2015년</td><td>수출: US 6억 5,276만\$ 수입: US 2억 1,652만\$</td></tr> <tr> <td>2016년</td><td>수출: US 5억 7,296만\$ 수입: US 2억 3,946만\$</td></tr> <tr> <td>2017년</td><td>수출: US 5억 7,296만\$ 수입: US 2억 3,946만\$</td></tr> <tr> <td>2018년</td><td>수출: US 6억 6,042만\$ 수입: US 3억 1,447만\$</td></tr> <tr> <td>2019년(~3월)</td><td>수출: US 1억 5,846만\$ 수입: US 9,513만\$</td></tr> </table>	2012년	수출: US 5억 9,300만\$ 수입: US 1억 2,600만\$	2013년	수출: US 6억 1,464만\$ 수입: US 1억 3,613만\$	2014년	수출: US 6억 5,441만\$ 수입: US 1억 9,399만\$	2015년	수출: US 6억 5,276만\$ 수입: US 2억 1,652만\$	2016년	수출: US 5억 7,296만\$ 수입: US 2억 3,946만\$	2017년	수출: US 5억 7,296만\$ 수입: US 2억 3,946만\$	2018년	수출: US 6억 6,042만\$ 수입: US 3억 1,447만\$	2019년(~3월)	수출: US 1억 5,846만\$ 수입: US 9,513만\$
2012년	수출: US 5억 9,300만\$ 수입: US 1억 2,600만\$																
2013년	수출: US 6억 1,464만\$ 수입: US 1억 3,613만\$																
2014년	수출: US 6억 5,441만\$ 수입: US 1억 9,399만\$																
2015년	수출: US 6억 5,276만\$ 수입: US 2억 1,652만\$																
2016년	수출: US 5억 7,296만\$ 수입: US 2억 3,946만\$																
2017년	수출: US 5억 7,296만\$ 수입: US 2억 3,946만\$																
2018년	수출: US 6억 6,042만\$ 수입: US 3억 1,447만\$																
2019년(~3월)	수출: US 1억 5,846만\$ 수입: US 9,513만\$																
수출입 주종 품목	- 대 캄보디아 수출 : 편직물, 화물자동차, 기타 섬유제품, 음료, 화장품 등 - 대 캄보디아 수입 : 편직제 의류, 직물제 의류, 알루미늄, 천연고무, 유선통신기 부품 등																
재 캄보디아 교민	약 10,000명 프놈펜(약 7,500명), 시엠립(약 2,000명), 기타지역(약 500명)																

III. 캄보디아 경제 현황

1. 경제 동향

□ 주요 부문별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GDP)

- 2005~2007년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1%의 두 자리 성장을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6.8%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0.1%의 GDP 성장률을 기록
- 그러나 2010년부터 봉제업 수출 증가, 건설프로젝트 증가, 외국인관광객 확대 등에 힘입어 2011년 이후 7% 넘는 고도성장 기록

<국내총생산(GDP) 변화 추이>

연 도	단 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US\$백만	11,232	12,818	14,057	15,228	16,703	18,055	20,017	22,158	24,300
1인당 GDP	US\$	781	877	945	1,014	1,094	1,163	1,269	1,384	1,450
실질성장률	%	6.0	7.1	7.3	7.4	7.1	7.0	6.9	7.1	7.0

* 자료원 : Asian Development Bank,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캄 중앙은행(2018)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과 함께 2007년 10.8%, 2008년 7.5% 등 가파른 물가상승을 보이다가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 -0.7%, 2010년 4.0%를 기록하였고, 2011년 4.9%, 2012년 2.5%, 2013년 4.7%, 2014년 1.0%, 2015년 2.8%, 2016년 1.5%, 2018년 3.0% 등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률과 함께 변동성 상존

○ 재정

- 캄보디아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매년 정부의 목표치인 GDP의 6% 수준을 넘어서나 심각한 수준은 아님
-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수입은 동남아국가의 평균 2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존 관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점차 세수가 증가하고 있음.

○ 환율

- 캄보디아 리엘 화는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때 약 40% 평가절하 되어 1달러당 3,900리엘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그 후 4,000리엘 수준 유지 중
- 2019년 기준 1달러당 4,000~4,100리엘 수준으로 기조 유지

2. 경제 관계

□ 캄보디아의 대외 교역 동향

- 국내 제조업 확대 및 다양화, 소득 증대 및 산업 발전으로 인한 국내 수요 지속 증가 등으로 캄보디아의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최초로 교역량 200억 달러를 돌파. 제조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5년간 무역수지는 평균 26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국내 자체 통계 시스템 미흡 및 비공식 교역 등으로 인해 국내 발표 통계와 국제 통계(ITC 상대국 통계 등) 간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
- 2018년 캄보디아의 수출은 약 190억 달러, 수입은 약 24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 폭이 약 4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수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5% 이상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2016년도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및 경기 회복 부진으로 인해 2017년 3.4%에 성장에 그쳤다가 2018년에는 의류수출 증가에 따라 5.9%로 반등
 - (수입) 제조업의 부재로 인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수입이 17%로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약 14%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경제 성장에 따른 내수 증가, 건설호황 등에 따른 자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수입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캄보디아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USD 백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13,011	14,708	17,334	17,929	18,987
수입	15,992	16,622	17,836	20,929	23,931
무역수지	-2,980	-1,914	-502	-3,000	-4,943

* 자료원 : ITC Trade Map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국 동향(2018)>

(단위 : USD 백만, %, %)

순위	국가명	수출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3,972	25	20.9
2	독일	1,980	11	10.4
3	일본	1,605	27	8.5
4	중국	1,377	37	7.3
5	영국	1,271	-2	6.7
6	프랑스	1,151	11	6.1
7	캐나다	1,136	14	6
8	베트남*	1,029*	41*	5.7*
9	스페인	890	23	4.7
10	태국	774	-14	4.1
기 타		4,827	-	-
합 계		18,987	5.9	100

* 자료원 : ITC Trade Map

* 주 : 베트남은 2017년 기준, 2018년 수출액 합계에 베트남 통계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미반영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국 동향(2018)>

(단위 : USD 백만, %,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가율	비중
1	태국	7,585	44.23	31.69
2	중국	6,022	25.91	25.16
3	싱가포르	4,768	59.91	19.92
4	베트남*	2,779*	26.35*	13.27*
5	홍콩	965	5.48	4.03
6	대만	700	7.63	2.92
7	한국	661	9.48	2.76
8	인도네시아	525	2.24	2.19
9	미국	446	11.58	1.86
10	일본	421	17.69	1.76
기 타		1,833	-	-
합 계		23,931	14.34	100

* 자료원 : ITC Trade Map

* 주 : 베트남은 2017년 기준, 2018년 수입액 합계에 베트남 통계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미반영



<캄보디아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USD 백만, %, %)

순위	품목명	수출액('17)	수출액('18)	증가율	비중('18)
1	의류(편물제)	7,629	8,424	10.42	44.36
2	의류(편물제 이외)	3,394	3,810	12.28	20.07
3	신발	1,819	2,003	10.11	10.55
4	가죽제품, 여행용구	447	862	92.97	4.54
5	전기기기 및 부분품	456	514	12.66	2.70
6	차량 및 부분품	422	471	11.58	2.48
7	곡물	347	403	15.98	2.12
8	모피, 인조모피	292	282	-3.42	1.48
9	플라스틱제품	161	241	49.41	1.27
10	식용 채소, 뿌리	608	218	-64.11	1.14
합 계		17,929	18,987	5.9	100

* 자료원 : ITC Trade Map

* 2018년 품목별 수출액에 베트남 통계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미반영

<캄보디아의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USD 백만, %, %)

순위	품목명	수입액('17)	수입액('18)	증가율	비중('18)
1	귀금속	3,029	5,797	91.38	24.22
2	편물	2,379	2,353	1.09	9.83
3	광물성 연료	2,013	2,206	9.59	9.22
4	차량 및 부분품	1,323	1,515	14.56	6.33
5	기계류 및 부분품	1,234	1,498	21.31	6.25
6	전기기기 및 부분품	1,111	1,169	5.24	4.88
7	면(cotton)	712	716	0.48	2.99
8	음료, 주류	496	612	23.31	2.56
9	플라스틱제품	554	524	-5.39	2.19
10	합성섬유	359	391	9.02	1.63
합 계		20,929	23,931	14.34	100

* 자료원 : ITC Trade Map

* 2018년 품목별 수입액에 베트남 통계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미반영

□ 한-캄보디아 교역 동향

- '18년 한-캄 교역 규모, 10억 달러에 근접, 최대 교역실적 거양
 - 對캄보디아 수출량 증가 및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16년 -12%, '17년 5.4%) 전년 대비 캄보디아의 對캄보디아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양국 교역량은 '18년 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수출량과 수입량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역수지는 2018년 346백만 불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음.
- 수출 품목, 섬유 원부자재에서 생활소비재 및 건설자재 등으로 다변화
 - 과거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 품목은 주로 투자진출 봉제기업의 섬유원부자재(편직물)이었으나,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저하로 편직물의 수입은 감소 추세. 또한 그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알루미늄 시트(Sheet, 캔맥주용)은 태국산으로 일부 대체되어 캄보디아 수입수요가 감소함.
 - 현재 화물자동차(중고)가 최대 수출품목이며,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박카스를 비롯한 음료, 주류, 식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
 - 대 캄보디아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 섬유업체의 완성품 수출이 전체의 83%를 점유하고 기타 알루미늄 스크랩, 에탄올 등이 주요 수입품목.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제품인 농산물의 경우 천연고무, 식물성유지 등이 일부 수출 중.

<對 캄보디아의 수출입 동향>

(단위 : USD 백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수출	653	573	604	660
수입	217	240	261	314
수지	436	333	343	346
교역량	870	813	865	97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 목 명	2017년		2018년	
		수출량	증가율	수출량	증가율
1	편직물	1,186	-6.6	1,075	-9.4
2	화물자동차	697	22.6	825	18.5
3	음료	604	6.7	708	17.2
4	기타섬유제품	424	-3.3	530	24.8
5	알루미늄조가공품	763	17.9	351	-54.0
6	기타가죽	40	49.3	247	522.9
7	기타의직물	157	68.9	220	40.5
8	승용차	111	18.5	174	94.0
9	화장품	90	-25.6	168	51.2
10	의약품	118	14.0	127	7.3
...					
총 계		6,038	5.4	6,604	9.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4단위)

<對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 목 명	2017년		2018년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1	편직제의류	1,150	-1.2	1,268	10.3
2	직물제의류	273	20.1	466	70.6
3	신발	239	20.1	333	39.3
4	제어용케이블	275	12.1	319	15.9
5	가방	127	6.7	229	80.7
6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53	49.1	144	-6.2
7	주류	169	138.1	125	-26.0
8	취미오락기구	25	-12.2	38	53.4
9	기타의료위생용품	36	12.9	31	-11.5
10	천연고무	48	13.4	27	-43.6
...					
총 계		2,613	9.0	3,145	20.3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3. 투자 관계

- 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했으나 GDP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 신고금액 기준 약 58억 달러까지 증가함. 중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2017년에는 14억 4,690만 달러, 2018년 27억 590만 달러 투자를 기록하면서 명실상부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이외의 주요 투자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건설 및 인프라, 제조업, 농업, 관광업 등임.
 - 2018년까지 한국의 대 캄보디아 직접투자 누적 금액은 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제조업, 농업, 부동산 등이며, 최근 금융 분야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국가별 대 캄보디아 해외투자신고금액>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531.6	240.6	731.4	1,446.9	2,705.9
일본	3.4	38.9	773.7	3.7	880.9
한국	65	8	20	150	14.5
홍콩	100.9	109.1	322.9	79.9	81.5
대만	34.3	46.5	34.8	23.4	33.4
싱가포르	36.6	26.8	103.8	246.9	7.8
전체	1,604.4	3,920.0	3,249.4	4,908.9	5,812.5

* 주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신고금액으로 실제 투자 금액과 차이 있음.

* 자료원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매년 국가 별 QIP 신고금액을 발표하고 있으나, 신고기준이며 캄보디아 기업의 투자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로 실 투자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요국의 대 캄보디아 해외투자 동향

- 중국의 대 캄보디아 해외투자 강세 지속
 -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008년도 최고금액(108억 달러)을 달성한 이후 매년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주요 투자국가중 중국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대 캄보디아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 특히 건설 부분에서 2018년 중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1.04억 달러로 건설부문 해외 전체 투자 금액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화교권 국가의 대 캄보디아 해외 투자 금액 높음.
 -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화교권 국가의 투자유입이 많으며, 정치적으로도 친(親)중국화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화교권이 큰 영향력을 끼침.
- 일본의 대 캄보디아투자 건설 프로젝트에 따른 규모 변화
 - 2016년은 일본의 이온몰 공사 및 대형 리조트 단지 투자 사업 수행으로 최대 투자국이었으며, 2018년에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호텔투자를 신고하면서 대 캄보디아 해외투자 비중 높아짐.

□ 한국의 대 캄보디아 해외투자 동향

- 2012년 이후 대 캄보디아 투자 감소 추세
 - 특히 제조업 등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투자(QIP)는 2012년 이후 크게 감소 추세
 - 2017년 미국의 GSP가 적용된 가방류 공장 투자 허가 건을 제외하면 중국, 일본 대비 급격 감소 추세
- 금융 및 보험업 진출 가속화
 - 낮은 임금과 세금혜택 등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의 도움으로 성장하던 봉제 제조업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으며,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증가
 - 반면 금융업은 높은 예대마진과 외화 거래의 제한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 높은 경제 발전도와 더불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2016년부터 투자금액 크게 증가

<주요 업종별 한국의 대 캄보디아의 투자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15	2016	2017	2018
금융 및 보험업	10.1	145.4	79.6	200.6
제조업	11.6	30.9	27.7	32.0
건설업	2.0	11.0	8.3	23.2
농업 임업 어업	6.9	11.5	10.0	6.5
부동산업	6.0	9.0	4.1	4.9
도매 및 소매업	2.9	3.6	0.9	5.2
투자금액 총계	42.8	215.2	136.7	275.9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4. 진출 유망 분야

□ 노동집약적 산업

- 캄보디아의 경우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단순 노동자 인력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에 매우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에서도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점 투자 유치 부문으로 선정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근로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아, 복잡한 기능이나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의 경우 단순한 작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 중국과 베트남의 규제 강화 및 급격한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은 캄보디아 진출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높은 수준의 조립생산 투자의 경우 전문기능인력이나 기술 인력 대상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최근 잦은 노동분쟁의 결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잃어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인근국가보다 여전히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집약산업의 대체 생산지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 있음.

- 틈새시장을 겨냥한 자본집약적 산업의 투자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인프라 수준이나 행정체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산업을 위한 투자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들어 중국의 제조원가 상승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탈 중국화 현상으로 봉제업 및 신발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분야에 대한 캄보디아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제3국 수출 가공 산업

- 수출산업의 원부자재 수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어 선진국에 대한 수출가공기지로 활용 가능.
- 단순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면서 특혜관세제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 EU의 경우 최빈국인 캄보디아 원산지 제품에 대해 EBA(Everything but Arms)라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대 EU 제품 수출의 경우 캄보디아를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음.
-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캄보디아 시장만 고려하지 않고, 인근 동남아 국가 및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국가 등을 겨냥할 필요가 있음.

□ 농산 원료 가공 분야

- 캄보디아에서 가장 풍부한 원료는 농수산물로 캄보디아 정부가 농업에 대한 중점 육성 정책을 취하고 있고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관개시설의 확대와 함께 농업 생산물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태국만이 있고 산림이 60%에 이르고 있어 수산물 가공이나 임산물 가공도 유망함.
- 농산물 가공을 통해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며, 가공에 따른 특혜관세를 통해 국제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도 있어 농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종

도 유망함.

□ 유망한 내수 시장 개발

- 캄보디아는 1인당 GDP 1,200달러의 동남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불과하며, 인구의 대부분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낮은 편임.
- 그러나 현재의 저소득, 미약한 시장규모는 미래의 고소득과 큰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어 현재의 시장과 구매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내수와 시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망한 내수시장은 먼저 개발이 낙후된 부문부터 검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경우 현지 전력 보급률이 낮아 향후 전선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출함. 그러나 밀수품과의 가격 경쟁, 캄보디아 정부 전력인프라 투자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 투자 유의사항

□ 낮은 투명성에 유의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는 20점으로 최하위권인 161위를 차지함.
- 대부분의 인허가 처리에는 법정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법정수수료만 지불해서는 아무리 서류를 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우며, 서류에 결재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일종의 비공식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부정부패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판단은 매우 미약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반 부정부패법 제정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다 2010년 부정부패방지법이 탄생하고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아직 효과는 미약함.

-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CDC의 경우도 비공식 수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님. 투자인센티브 CDC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와 같이 특혜를 부여하는 인허가절차는 거의 모두 비공식 수수료가 필요함.
- 투자인센티브 신청 공식 수수료는 1,750달러 정도이지만 실제로 비공식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봉제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7,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경제구역(SEZ)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8,000달러 정도가 소요되고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2만 달러까지 요구되는 실정임.
- 통관, 세무, 인허가, 여권발급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 크고 작은 모든 정부의 행정절차에서 비공식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회전반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캄보디아 경제·사회적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정보 수집 노력

- 캄보디아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움. 정부는 정확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발표에 있어 역력이 부족하여, 속도가 늦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임.
-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필요한 정보는 직접 업체나 현장을 방문해서 수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전문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도 거의 없는 실정임.
- 캄보디아의 공식 통계자료는 자체적인 조사보다는 Worldbank, ADB등 양/다 자원조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조금씩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음.
- 마케팅조사 전문업체가 있지만 조사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현장에는 무수하게 다양한 소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기관이나 조사자에 따라 다른 정보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여러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프라 미비

-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도로, 철도, 항공 등 운송수단이 취약하고 유선 통신망 구축이 미흡하여 대부분은 무선통신망에 의존하지만 무선통신망도 잘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신망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유선 통신망 구축이 미흡하여 대부분은 무선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음.
- 전력 또한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이며, 인근 국가(태국, 라오스, 베트남)로부터의 수입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수력, 화력발전소의 막대한 투자로 캄보디아 전력현황이 좋아지고 있으며, 자가 발전량도 증가하고 있음. 다만 아직까지도 전력현황은 불안한 상태이고, 발전 및 공급량 대비 누전량이 많은 상태임.
-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취약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수기로 서류가 작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넉넉히 시간을 두어야 시한을 맞출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대부분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물류비, 전기세, 통신비 등 제반 비용이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임.

□ 전문 인력의 확보

-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외국에서 유학한 인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기능이나 기술수준이 높은 다양한 인력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워, 소수 고급 인력은 급여수준에 따라 이직이 잦음.
- 필요한 전문 인력의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국이나, 베트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임.
- 현지에서 자체적인 인력을 양성하거나, 파견 교육을 통한 전문 교육 이후 현지에서 고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개인의 역할과 신뢰성

- 공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특성상 소위 고위층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아무리 신뢰성이 있는 중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자와 인척관계이거나 권력자와 업

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업무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착취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함.

- 중개인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직접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인허가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개인을 통하여 고위층을 내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무적인 절차는 모두 거쳐야 하므로 해당 부처와 직접 접촉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6. 정치 현황

□ 캄보디아 제6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개혁 노력 가속화 전망

- 2018년 7월 총선 승리로 집권 연장에 성공한 훈센 총리는 신정부의 공식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국가발전전략에서 정부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힘.
 - 공공행정, 공공재정관리, 분권화, 법제도, 군사력 등 다방면의 개혁을 통해 지난 정부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다양한 개선책이 시행되고 있음.
 - * 금융정책 및 제도 개혁, 세제 개편, 교육 개혁,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토지 등 다방면에 걸친 개혁 추진 중
- 개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과 세제 개편 및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불안감 공존
 - 2019년부터 임금 지불 방식 및 퇴직금 정산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경영 관리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 2018 총선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캄보디아 제재 가능성

- 총선 전후 정부의 야당 탄압행위 및 선거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EU 등이 캄보디아 제재를 검토하면서 관세특혜 축소 또는 철폐 등 실질적인 경제 제재 가능성에 대한 관심 집중
 -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강제해산, 야당 대표 구속, 독립 언론 탄압 등을 자행했으며, 미국과 EU는 이에 대해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또한 EU는 선거과정에서 자행된 탄압이나 권리침해 등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EBA 무역특혜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힘.



- * EU 무역위원회는 2019년 2월 캄보디아 EBA 철회 절차를 공식 개시했으며, 세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
- * 캄보디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수출입 통관체계 일원화, 컨테이너 스캔 수수료 인하, 전기세 인하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임.

7. 한국과의 관계

□ 체결 협정 현황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무역 및 지불협정	1964년 10월 16일	1964년 12월 8일
문화협정	1973년 1월 29일	1973년 1월 29일
대표부 설치 양해각서	1996년 5월 15일	1996년 5월 15일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7년 2월 10일	1997년 3월 12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7년 2월 10일	1997년 3월 25일
무상기자재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1997년 5월 15일	1997년 5월 15일
EDCF 기본협정	2001년 4월 10일	2001년 4월 10일
항공협정	2001년 4월 10일	2001년 5월 10일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EDCF 협정	2001년 11월 8일	2001년 11월 8일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2001년 11월 29일	2001년 11월 29일
직업훈련원사업 EDCF 협정	2002년 6월 5일	2002년 6월 5일
도로개보수 EDCF 협정	2002년 11월 6일	2002년 11월 6일
수자원개발 EDCF 협정	2006년 3월 21일	2006년 3월 21일
문화협정	2006년 7월 31일	2006년 8월 24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	2008년 11월 1일
EDCF 기본약정	2008년 12월 30일	2008년 12월 30일
농업기술전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9년 5월 30일	2009년 5월 30일
무상원조 기본협정	2009년 6월 4일	2009년 6월 4일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	2009년 11월 29일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설치 협정	2010년 4월 12일	2010년 4월 12일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	2010년 10월 17일
한·캄 범죄인인도협정	—	2011년 10월 1일
은행 지급결제 현대화 사업 양해각서	—	2014년 12월 13일
상표 분야 협력 양해각서	—	2014년 12월 13일
청년 예비창업가 활성화 양해각서	—	2014년 12월 13일
2019~23년 EDCF 차관 기본약정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학술 협력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2019년 3월 15일
형사사법공조조약	2019년 3월 15일	—

- 1997년 10월 30일 한·캄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공식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며,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설치

□ 정치·외교관계

- 캄보디아는 한국의 주요 유·무상 원조 대상 국가로서 캄보디아 일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양호한 편임.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은 급증하다가 2009년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민간 차원의 관계도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있음.
- 2006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민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보다 많은 유무상 원조를 약속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시발점이 됨.
-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때 훈센 총리가 방한한 바 있으며,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으로 양국 간 우호증진 교류가 활발해짐.
- 2009년 6월, 10월에는 각각 양국 정상인 상호 방문을 통해 경제·통상, 자원·에너지, 문화·영사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공고화함
- 2014년 12월 훈센 총리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현재의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양국 관계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내용으로는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 협의, 메콩강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은행 지급결제 MOU, 상표 분야 MOU, 청년 예비창업가 활성화 MOU, 조속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상호 무관부 설치가 주를 이룸
- 2019년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상생번영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 문안 타결 등 양국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등 양 국민의 우호를 더욱 증진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 교통, 인프라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 아울러,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방안도 논의하였음
 - 2019-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학술 협력 양해각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 등 서명식에 양 정상이 임석.

IV. 캄보디아 시장 특성과 바이어 특징

□ 캄보디아 인구

- 캄보디아의 인구는 2013년도에 약 1,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국가(평균 나이 27세)로 매우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나라임.
- 캄보디아 인구는 2020년까지 약 1,8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시장에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가정. 이는 곧 경제발전의 한 견인축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시장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캄보디아는 작은 시장이지만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빠르고 고객의 호기심이 높은 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상품 수명 주기가 짧은 편. 최근 이러한 특성과 맞물려 대형쇼핑몰, 온라인 유통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캄보디아 문화

- 캄보디아는 고대부터 힌두교와 불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역사, 설화, 건축물에 그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향후 화교들이 자리를 잡아 상권을 장악하면서 중국 문화도 일반화 되어 있으며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캄보디아인은 대부분 중국계인 경우가 많음.
- 보수적인 캄보디아인들의 특성상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제품 유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 예컨대, 성인용품 및 사행성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과 유통에는 면밀한 시장 및 인허가 검토가 필요함.

□ 캄보디아 인프라

- 킬링필드 이후 그나마 존재했던 인프라마저 파괴된 캄보디아는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등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 하지만 현재 양다자간 원조 기구의 원조와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인프라 관련 투자로 인하여 개선되고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행정 시스템, 법 제도 개선, 신 재생 에너지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을 도입 및 시도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 또한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

□ 캄보디아 제조업

- 2010년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내의 봉제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하였고, 특히 저렴한 인건비의 캄보디아로 이전을 많이 하였음. 하지만 이후 빈번한 노동분쟁과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봉제업의 신규 투자는 감소하였음. 2018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다시 캄보디아로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진출기업 및 중국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인근국가(태국, 베트남, 중국)에 비해 제조 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일반 소비재, 생활필수품, 식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마트에서 Made in Cambodia 공산품은 거의 보기 힘들고 금속가공 등 중화학 처리기술이 전무하며, 플라스틱 사출기술 같은 기초적인 산업기술마저 도입이 안 된 상태로, 기초적인 일용품마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 캄보디아의 많은 비즈니스인들은 캄보디아의 작은 시장 규모 등의 이유로 제조업 개발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인근국가와의 무역(수입)을 통한 부의 축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부동산 투자 열기에 힘입어 프놈펜 지역의 부동산 가치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갈수록 제조업 투자에는 관심을 갖기에 힘든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경향으로 자칫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인한 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對 한국 이미지

- 일반적으로 ‘한국 = 선진국, 한국 상품 = 높은 가격, 좋은 품질’의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캄보디아 시장은 품질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미지가 진출에 방해가 되기도 함. 따라서 제품에 따라 고급화 전략을 준비하는 마케팅도 필요함.
- 한국은 ‘캄보디아에 원조해 주는 잘 사는 나라’, 자국 국민 5만명이 노동자로 파견되어 ‘현지 월급여의 6~7배를 벌 수 있는 나라’ 등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과거 캄보디아 왕의 북한과의 친분과는 달리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캄보디아는 한류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음. 특정 유명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 시즌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으나, 드라마가 종영이 되면 다시 분위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단순히 한류마케팅으로만 시장에 접근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음.

□ 바이어 특징

-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은 주로 중고품 및 재고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신제품(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산)의 금액과 한국 중고제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여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한국과의 직접 거래 경험이 적은 경우, 혹은 주문 물량이 적을 경우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수입을 하는 바이어도 있음.
- 첫 가격 리스트 송부 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나 무리한 결제 조건을 요구하여 어려운 거래라는 인식을 주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음.
- 캄보디아 바이어들은 즉흥적으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교신 초기단계부터 구매를 할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특이사항이 없다면 바로 거래를 위한 교신이 진행 되지만 중간에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변심하는 경우는 타인에게 미안한 말을 못하는 문화적 특성상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 미팅 시 유의사항

- 바이어 면담 시 Mr. 나 Ms. 혹은 Dr. 등의 경칭을 붙이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면 꼭 강조하여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음을 어필하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함.
- 사후 이메일 교신 시, 통신사정이 좋지 않아 메일을 보내고 난 후 꼭 전화로 메일 열람 여부를 확인해야 신속한 거래가 진행 될 수 있음.

V. 프놈펜 관광 안내

□ 왕궁(Royal Palace)

왕궁은 현재 재위중인 시하모니 국왕이 거주 중이며, 캄보디아 건축양식이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임. 1866년 세워진 왕궁의 본전 건물은 힌두교와 불교의 설화를 담고 있으며, 바로 앞에는 1861년 나폴레옹 3세가 기증한 프랑스식 건물과 왕궁 사무소가 있음. 시소왓 왕(1904~1927년 재위)에 의하여 건립된 본전은 앙코르 톰의 바이온 사원을 모방하여 만든 59m의 탑이 장식되어 있으며, 대관식이나 외교사절 접견 등의 의례에 사용됨



□ 실버 파고다(Silver Pagoda)

왕궁 안에 자리한 실버 파고다 사원은 우리식 왕사로서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임. 실버 파고다의 이름은 사원 중앙 바닥이 은제 타일(하나당 1.1kg)로 깔려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총 무게는 5,809kg임. 파고다의 내부에는 금으로 만든 대좌위에 에메랄드 부처(Baccarat Crystal)와 9,584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 90kg의 금부처가 있으며, 제일 큰 다이아몬드는 25캐럿이라고 함. 이곳의 불교사원에는 많은 탑이 있는데, 실버 파고다 마당의 탑은 현 시하모니 국왕의 조상이나 시하누크 전 국왕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임



□ 독립 기념탑

수도 중심부인 시하누크 거리와 노르돔 거리가 교차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앙코르 양식의 건축물임. 1953년 11월 9일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 탑은 1958년에 완공되었으며, 캄보디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위한 위령탑으로도 사용됨. 지방의 각 도청소재지는 이와 비슷한 독립기념탑을 도시 중심에 세움



□ 왓 프놈(Wat Phnom)

왓 프놈은 ‘산위의 사원’이란 뜻(Wat은 사원이고, Phnom은 산)으로 Penh이라는 보살이 메콩강에 떠내려가는 여의주를 발견하여, 이 여의주를 모시기 위해 왓 프놈 사원을 세웠다는 전설이 내려옴. 여기에서 프놈펜(Phnom Penh)이라는 지명도 유래됨



□ 툴슬랭 박물관(Tuol Sleng)

툴슬랭 인종 학살 박물관은 크메르루주 정권의 고문장소로서 고등학교를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당시에는 S-21감옥소로 불림. 이곳을 거쳐 간 1만 4천여 명 중 생존자가 단지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른바 ‘살인공장’으로 알려져 있음. S-21 감옥소는 1979년 크메르루주가 반 크메르루주 저항군-베트남군간 연합 세력에 의해 태국 국경지역으로 쫓겨난 이듬해인 1980년부터 툴슬랭 인종 학살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됨.

□ 킬링필드(Killing Fields)

킬링필드는 툴슬랭에서 고문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살상된 장소로서 통상 툴슬랭에서 고문과정이 끝나면 수용자들은 저녁에 눈가리개를 하고 손발이 묶인 채, 트럭으로 이곳에 실려와 무참히 살해됨. 킬링필드에서 희생된 사람은 약 16,000명 정도이고, 현재 두개골 8,000여개를 수습해 위령탑을 세우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함.

※ 주요 연락처

□ 긴급연락처

- 경찰 : 117/118 프놈펜 : 097-77-80002
 - 외국인을 위한 24시간 운영 현지 경찰 핫라인 031-201-2345
 - Whats App 어플 계정 : (855) (0)31-201-2345(전화번호로 검색)
 - E-mail : fad-info@police.gov.kh
- 소방서 : 118 또는 012-786-693
- 의료기관
 - 헤브론 병원(한국어 사용 가능) : 012-436-124, 주소 : Phum Prey Salar Sangkat Kakab, Khan Dangkor,(프놈펜 공항 맞은편)
 - 제일병원(First Center Clinic, 한국어 사용 가능) : 092-911-911, 주소 : No.364-366, Preah Monivong, Phnom Penh
 - Raffles SOS hospital : 012-816-911, #161, Street 51(Pasteur) Sangkat Boeung Raing Khan Daun Penh 12211
- 한국대사관 : 023-211-900/3, cambodia@mofa.go.kr
 - 근무시간(08:30~17:00)외 긴급시 비상연락처 : 당직휴대폰 092-555-235 (당직자가 자택에서 비상전화 대기)
- 재캄보디아 한인회
 - 023-964-160(주중 08:30~17:00), 안전담당 : 012-836-152, 088-6011-810
-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전화번호 : 023-964-150/1
- KOTRA 프놈펜 무역관
 - 전화번호 : 023-999-099
 - 이메일 : kotrapnh@kotra.or.kr



해외에서의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KOTRA입니다.

지난 9.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KOTRA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KOTRA 청탁방지담당관 올림

해외 출장 시 기강 문란 행위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현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강 문란 행위 : 통역 등에 성희롱, 지나친 음주, 유흥업소 출입, 도박 등**



www.kotra.or.kr